

콜드(Colde), 푸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엔 윤슬이 반짝이네

새 EP '러브 파트 투' 호평...RM·이찬혁 협업
오는 9~11일 콘서트 '마이 리틀 블루 보트' 개최

"푸른빛 바랜 그대의 사랑을~"이라고 시작하는 첫 트랙 '섬'의 첫 소절을 듣는 순간부터 '푸른 사랑의 서사'에 빠져들게 하는 앨범의 흡입력이 대단하다.

싱어송라이터 콜드(Colde·김희수)가 최근 발매한 새 EP '러브 파트 투(Love Part 2)'는 떠오르는 심상으로도 화음(和音)을 만들어내는 음반이다.

'러브 파트 투'는 콜드가 지난 2019년 발매한 '러브 파트 원(Love Part 1)'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러브(Love) 시리즈'의 연작. '러브 파트 원'을 통해 사랑을 막 시작할 때의 설렘·기쁨을 담아냈다면, '러브 파트 투'에서는 이별 후의 아픔과 상처, 그리움을 짙게 그려낸다.

사랑의 가변성과 불안정성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의 농도를 희석시키지는 않는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가 아닌 '더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블루'. 그런 사랑의 불가해한 점을 노래하는 아이러니로 수렴되며, 그래서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처럼 다양한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콜드 음악의 매력이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엔 다양한 빛깔의 윤슬이 반짝이는 것처럼.

콜드는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앨범 아트 워크에서 나오듯이 이번 앨범에서 다루는 사랑의 색깔이 파랗고 푸르스름한 느낌이었으며, 그런 사랑과 함께 저에게 상징적인 파도의 이미지를 함께 가장 많이 떠올렸다"고 했다. 다음은 콜드와 나눈 일문일답.

-그림도 그리시는 만큼 청각뿐 아니라 시각을 자극하는 공감각적인 심상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와 가사가 일품이네요. 그림 그리기와 노래 만들기가 아무래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죠?

"네, 저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림 그리, 사진, 영상으로 시각화 하는 것과 노래

를 만드는 것은 서로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저에게 그 행위들은 구분되지 보다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콜드 씨의 음악은 세련, 도회적, 푸른 감성, 햇빛 심상, 푸른 고백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는 이어지지만 음반 자체를 팔레트에 비유한다면 더 많은 색깔을 갖춘 느낌입니다. 특히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그랬어요. 좀 더 원색의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이번에 믹싱 등 사운드를 매만질 때 가장 신경 쓴 지점은 무엇인가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앨범 안에서 크게 주축이 돼주는 주제와 이미지가 있지만 그걸 이루는 각각의 앨범 곡들은, 다채롭고 각각만의 색깔이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게 사운드 디자인이나 믹싱에서도 더 뚜렷하게 정체성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곡마다 추상적이지만 이미지나 색깔을 생각하고, 사운드의 질감을 그 방향에 맞추어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는 편입니다."

-RM 씨와 음악 협업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 같아요. 트렌드를 따르는 듯하지만 RM 씨 앨범에 실렸던 '헝크'이 시티팝에 대한 재해석이었던 것처럼 장르에 대한 두 분의 소신이 묻어나서 좋아요. '다시는 사랑한다 말하지 마'에선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눴나요.

"가장 많이 나눴던 이야기는 이 곡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저희 둘이 함께 함으로서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을지, 사운드적으로나 가사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시도도 해보면서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별클럽'은 콜드 씨, 찬혁 씨 각각의 개성이 도드라지는데 충돌하지는 않는 균형감이 일품입니다. 이 곡을 작업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눴나요? 이별 클럽 가입 신청서 아이디어도 재밌었습니다.

"서로의 가사와 보컬 톤을 만드는 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각자가 해보지 않았던 톤을 만들고서, 이별클럽이라는 테마 안에서 유기적으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이번 앨범 5번 트랙 제목이기도 하지요. 콜드 씨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 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콜드 씨가 생각하시는 그런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무엇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앨범의 맨 마지막 트랙인 '넌 쉽게 말했지만'과 첫 트랙 '섬'을 이어서 들어보시면 가사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로 모든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 때, 리얼 악기로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감성적이고 풍부한 질감이 만들어졌는데 이 같은 작업 방식을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어서, 직접 공연장으로 찾아가서 본 공연과 그 음악들을 우리는 오랜 시간 잊지 못하곤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운드를 컴퓨터로 다 구현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리얼 악기와 미디 프로그래밍의 조화와 밸런스를 잘 찾아가는 게 요즘의 아티스트들에게는 특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을 작업하신 뒤 콜드 씨에게 생긴 새로운 감정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러브 파트 원'을 만들면서 느꼈던



사랑에 대한 감정을 지금의 상태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콜드 씨를 보면 자연스레 '좋은 취향'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 취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지려면 좋은 싫든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소비하고 뭐든지 부딪쳐서 많이 겪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감함과 도

전정신이 자신만의 취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니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더 열려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콘서트 계획을 갖고 있나요?

"조만간 '마이 리틀 블루 보트'(6월 9~11일 신한pLay 스퀘어 라이브홀)라는 소극장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 무대를 통해 팬분들을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최백호 낭만콘서트'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400만 돌파 열기에 더해 오는 6월 2일과 3일 오천그린광장에서 유명출연진과 지역예술단체가 함께 펼치는 '낭만 정원 콘서트 in 순천' 공연을 개최한다.

2일은 낭만가객 최백호 특유의 음색으로 80년대 추억을 상기시키는 음악과 지역예술단체 동화락의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보인다. 3일에는 남상일, 김산옥, 지역예술단체 별난이 판소리, 퓨전국악으로 조선관공류의 흥겨움과 트로트가수 박규인이 신명 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은 별도의 공연 티켓이나 입장권 없이 돛자리, 양산 등을 준비하고 오천그린광장으로 오면 된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3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획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 팀 완전체 신곡... '테이크 투'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약 1년 만에 팀 완전체 신곡을 낸다. 특히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신곡이다.

5월 31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위버스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6월 9일 오후 1시 디지털 싱글 '테이크 투(Take Two)'를 발매한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참여해 팬덤 '아미(ARMY)'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앞으로도 함께하라는 바람을 담았다. 걸어온 날들과 걸어갈 날들을 '테이크 투'라는 테마로 풀어냈다

1년 만에 완전체 팀 신곡...오는 9일 발매

는 설명이다. 빅히트 뮤직은 "지난 2013년 그들의 데뷔가 첫 번째 시작이었다면, 지난 10년의 시간과 앞으로 방탄소년단이 나아갈 제2막까지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아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멤버 진과 제이홉이 임대 전에 녹음한 곡이다. 특히 슈가가 프로듀싱에, RM과 제이홉이 곡 작업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선보이는 신곡 음원은 지난해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 타이틀곡 '렛 투 컴(Yet To Come)' 등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공개된 완전체 음원 '더 플래닛(The Planet)'은 방탄소년단의 자체 곡이 아닌, 국산 애니메이션 '베스티안즈' OST 타이틀곡이었다. '테이크 투'가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공백에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등 글로벌 차트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있다.

빅히트 뮤직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방탄소

년단의 10년을 만들어 주신 아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테이크 투'가 방탄소년단이 팬 분들께 드리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2023 BTS 페스타(FESTA)'를 연다. 멤버들의 순차적인 군 복무로 인해 단체 활동이 공백기임에도 매년 진행한 '페스타'를 올해도 이어간다.

이날 페스타 퀘린터를 공개했는데 와이안 등이 그려진 6월10일은 '방탄 회식' 콘텐츠가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던 '눈물의 회식' 이후 1년이 지나 선보이는 회식인 만큼 각종 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텐츠는 진, 제이홉의 임대 전에 모두 촬영했다. 빅히트 뮤직 회사회사 하이브 박지원 CEO도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공백기 콘텐츠와 관련된 많은 걸 준비했다며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용띠클럽, 6년만 새 예능... '택배는 몽골몽골'

1976년생 용띠클럽이 또 한 번 뭉친다. JTBC '택배는 몽골몽골'(가제)은 용띠 절친인 가수 김중국과 배우 장혁, 차태현, 홍경민, 가수 홍경민이 몽골에서 배송하는 모습을 담는다. 김 PD와 KBS 2TV '용띠클럽-철부지 브로망스'(2017) 이후 6년 만의 호흡이다. 열다섯 살 차 배우 강훈도 함께 한다.

올해 1월 김중국 유튜브 채널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차태현이 김 PD에게 전화, 아이디어를 제안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몽골은 세계에서 국토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적다. 인구의 30%가 유목민이라서 택배 인프라도 부족하다. 내비게이션 대신 나침반으로 길을 찾는 몽골에서 고군분투하며 배



송할 예정이다.

흥행 예약 '범죄도시3' 예매 관객수 60만명 넘겼다

전작 개봉일 예매량 훌쩍 넘겨

영화 '범죄도시3'가 예매 관객수 60만명을 넘겼다. 누적 관객수 1260만명을 달성한 전작의 공개 당일 예매량을 뛰어넘는 수치다.

'범죄도시3'는 31일 오전 9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62만5703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을 기록하며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예매량은 1만4702명이다. '범죄도시3' 예매 점유율(전체 예매량 대비 특정 영화 예매 비중)은 약 87%

에 달한다. '범죄도시3' 개봉일 오전 예매량은 전작인 '범죄도시2' 수치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5월에 나온 '범죄도시2'는 예매 관객수 약 31만명을 기록했었다.

'범죄도시3'는 2017년 '범죄도시', 2022년 '범죄도시2'로 이어진 '범죄도시'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서울 광역수사대에서 일하게 된 형사 마석도가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일이 신종 마약 유통과 관련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마동석과 함



께 이준혁·이범수·김민재·이지훈·전석호·고규필 등이 출연하고,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도 나온다.